

CFE REPORT

∴ CFE Report ∴

2022. 11. 04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시사점과 과제

박 지 영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요 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9월 정부 대표단이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를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국에 공식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유치교섭활동과 홍보 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2023년 11월경 170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개최지를 놓고 한국과 경쟁을 펼칠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이며 유치계획서를 낸 후부터 4개국의 본격적인 유치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히는 대규모 국제 행사이며 2030년 대한민국이 부산에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했을 경우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어 세계 3대 축제를 모두 개최하는 전 세계 7번째, 일본에 이은 아시아 2번째 국가가 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예상 파급효과는 43조 원의 생산규모, 18조 원의 부가가치, 50만 명의 고용창출로 예측되며 역대 세계박람회를 개최했던 국가들이 모두 경제성장, 기술발전, 인프라 개선 등 양적 발전과 더불어 중장기적 경제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부산세계박람회 또한 부산을 세계적 물류허브이자 중국과 러시아, 유럽 등과 연결되는 환동해 및 태평양권의 중심지로 부상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세계박람회는 다른 국제 행사와 다르게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인 정부 대표들의 투표에 의해 개최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유치 홍보 시 각국의 상업적 이익과 직결되는 전략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품판매 등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가 기본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개최국의 상업적 역량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세계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입증한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한국 정부와 민간, 국회 등은 범국가적 ‘Korea One Team’을 결성해 전방위적 유치교섭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4개 정부부처 장관, 부산광역시, 삼성전자·SK 등 5대 그룹들이 힘을모아 민관이 협력하여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정했다.

두바이와 밀라노 등 지난 세계박람회 개최국의 유치 성공 사례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사전 준비가 유치 성공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우리나라의 차별화 포인트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과의 꾸준한 신뢰 형성을 통해 기업 차원에서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네덜란드와 멕시코 등을 예방하며 유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LG전자, 현대차 그룹 등 민간 차원에서 기업 최고위층의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가 전개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역량은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우위를 지닌 부분이며 민간과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한다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가능하게 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 차>

I. 서론

1.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추진 개요
2. 유치 지역으로서 부산의 경쟁력

II. 엑스포의 역사와 의미

1. 엑스포의 역사적 배경
2. 한국의 엑스포 역사
3. 엑스포 개최의 국가적 의미

III. 엑스포 유치의 경제적 효과

1. 우리나라의 상업적 경쟁력
2. 역대 엑스포 개최국의 경제적 성과
3. 엑스포 개최 후 장기적 전망

IV.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시사점과 과제

1.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 및 노력: 실무차원
2.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 및 노력: 민간차원
3. 경쟁국 대비 유치 경쟁력
4.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향후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1.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추진 개요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정부 대표단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를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국에 공식 제출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파견을 갔음
 - ▶ 정부 대표단은 국제박람회기구 사무국을 방문하여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드미트리 케르켄테즈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함
 - ▶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2023년 11월경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유치계획서 제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170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교섭활동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에는 대한민국이 구사하는 행사 개요, 박람회 주·부제, 예상 방문객 수, 회장·교통·숙박, 자원계획, 차별화 포인트 등이 담겨있음
 - ▶ 각 후보국들이 제출한 유치계획서는 170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에게 전달되며 이를 토대로 박람회 개최능력이 평가되고 2023년 1분기 중에 있을 개최지 현지실사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임
 - ▶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요구하는 유치계획서 주요항목은 총 14가지로 주제 및 개최일정, 개최목적 및 효과, 환경 분석, 개최 목표, 전시표현, 국가적 지원, 홍보전략, 개최지 선정 조건, 회장 조성계획, 전시관 건축기준, 예상방문객, 숙박계획, 예산타당성, 개최 비용이 있음
 - ▶ 우리나라와 경쟁을 펼치는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임. 유치계획서를 내는 시점부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4개국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됨



<표 1> 2030 부산세계박람회 행사 개요

행사명	2030 부산월드엑스포 World EXPO 2030 Busan Korea	개최기간	2030년 5월 1일 ~ 10월 31일 (총 184일간)
개최장소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	참가규모	관람객 3,480만 명 160개 국가, 20개 국제기구, 15개 NGO, 40개 기업
사업규모	박람회장 조성 343만 m ² 전시시설, 지원시설 등	총 사업비	약 6조 5천억 원
추진방법	정부주도 추진 (2030부산월드엑스포유치위원회)	파급효과	생산유발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취업유발 50만 명

자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임
 - ▶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대전환’을 키워드로 제시했으며 ‘항해’는 개최지인 부산을 상징함
 - ▶ 대전환을 통해 세계인이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총 3가지의 부제(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함

<그림 1>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식 로고



- 대한민국은 부산만의 6가지 차별화 포인트를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쟁국 대비 우위를 점하고자 함
 - ▶ 메타버스를 통해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열린 엑스포, 친환경 기술의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엑스포, 역대 최대 규모의 개도국 지원을 통한 함께하는 엑스포, 최신 기술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보장하는 신기술 엑스포, 세계인이 문화를 함께 교류하고 즐기는 문화 엑스포, BIE 100주년을 기념하고, 박람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엑스포 등 부산만의 총 6가지 차별화 포인트를 강점으로 활용하여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할 예정임

- 정부와 민간, 국회 등은 범국가적 ‘Korea One Team’으로서 전방위적 유치교섭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 ▶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둔 유치지원민간위원회는 기업 최고위층의 유치활동 전개, 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경쟁국 대비 우리의 강점으로 손꼽히는 기업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함¹⁾



2. 유치 지역으로서 부산의 경쟁력

- 개최도시의 입지와 테마가 월드엑스포 유치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부산은 입지의 우위성과 탁월한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
 - ▶ 부산의 입지적 우위성은 유라시아 관문에 위치한 해양과 대륙의 연계거점이라는 데에 있음. 중국, 러시아, 유럽 등과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망(TSR, TCR)의 기·종점으로써 환동해 및 태평양권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
 - ▶ 철도, 도로, 항만, 공항의 입체적 연계와 이를 통한 국토 접근성 및 글로벌 접근성 확보를 바탕으로 부산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6위의 항만도시로 성장했으며 한국 항만물동량의 24.5%를 차지하고 있음
 - ▶ 2030년 이전까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더해지면 글로벌 허브도시로 중국의 거대시장 흡수도 가능해짐
 - ▶ 부산만의 탄탄한 교통 인프라는 박람회 개최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며, 행사 개최 후 박람회 부지의 향후 활용 가능성을 높여 시설 유치 및 수익성 또한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인류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박람회기구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임
 - ▶ 부산은 1876년 개항 이래 일제감정기 수탈의 전초 기지였으며 1950년 한국전쟁 시기 대한민국 임시수도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또한 가공 무역의 중심지인 부산항은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 도시임
 - ▶ 식민지와 해방,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근대화 등 한국 역사의 급격한 전환기의 중점이었다는 점에서 부산은 희망·번영·평화의 이념을 확산하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함

- 부산은 월드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소프트파워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며 풍부한 관광문화자원과 사회인프라로 저비용 고효율 엑스포를 개최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
 - ▶ APEC 정상회의, 아시안게임, 부산국제영화제 등 대형 국제 행사를 성공

1)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2차 회의

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세계 9위, 아시아 4위의 마이스 도시로 글로벌 전시 역량을 갖추고 있음

- ▶ BEXCO를 비롯한 글로벌 컨벤션 시설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 영화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등 세계적인 관광시설도 구축하고 있음
- ▶ 숙박시설의 경우 5성급 이상 호텔이 121곳으로 객실 수는 2,5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 적합함
- ▶ ICT산업, 사물인터넷(IoT) 등 그린스마트도시로써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

● 한국 제2의 도시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음

- ▶ 문헌금융단지는 우리나라의 금융 중심지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토대가 되고 있음
- ▶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해외 직·간접 투자, 관광산업,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통해 부산지역의 생산 증가, 고용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대되고 있음

● 부산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지속적인 유치운동을 해오며 강력한 유치 의지를 지니고 있음

- ▶ 부산시는 2014년 7월부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그해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범시민 준비위원회’를 구성함
- ▶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다이내믹 부산’ 시민의 열정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야말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임

II

엑스포의 역사와 의미

1. 엑스포의 역사적 배경

- 엑스포(Expo, 박람회)는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박람회기구에 의해 공인된 행사이며 전세계 각국의 생산품을 합동으로 전시하는 국제 박람회임
 - ▶ 일반 시민의 교육, 국가 및 기업의 혁신과 협력 촉진을 위한 글로벌 대화의 장이며 국제박람회기구로부터 개최권을 획득해야 엑스포 개최가 가능함
 - ▶ 엑스포에 참가하는 세계 여러 국가들과 기업들은 과학·기술·문화적 성과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시하며 이를 통해 총체적인 상업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이게 됨
- 국제박람회기구가 공인하는 엑스포의 종류는 등록엑스포, 인정엑스포, 트리에날레, 원예박람회 등이 있음
 - ▶ 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등록엑스포를 월드엑스포 또는 세계박람회라고 지칭하며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개최국이 결정됨
 - ▶ 월드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에 속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지혜를 모으고 교육하는 장으로서 새로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임

<표 2> 역대 월드엑스포 개최 리스트

연도	개최국 도시	주제
1851	영국 런던	Industry of all Nations
1855	프랑스 파리	Agriculture, Industry and fine arts
1862	영국 런던	Industry and Art
1867	프랑스 파리	Agriculture, Industry and Fine Arts
1873	오스트리아 빈	Culture and Education
1876	미국 필라델피아	Arts, Manufactures and Products of the Soil and Mine
1878	프랑스 파리	New Technologies

1880	호주 멜버른	Arts, Manufactures and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roducts of all Nations
1888	스페인 바르셀로나	Fine and Industrial Art
1889	프랑스 파리	Celebration of the centenary of the French revolution
1893	미국 시카고	Fourth centenary of the discovery of America
1897	벨기에 브뤼셀	Modern Life
1900	프랑스 파리	19th century: an overview
1904	미국 세인트루이스	Celebration of the centennial of the Louisiana Purchase
1905	벨기에 리에주	Commemoration of the 75 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1906	이탈리아 밀라노	Transportation
1910	벨기에 브뤼셀	Works of Art and Science,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roducts of All Nations
1913	벨기에 헨트	Peace, Industry and Art
1951	미국 샌프란시스코	Celebrating the opening of the Panama Canal
1929	스페인 바르셀로나	Industry, Art and Sport
1933	미국 시카고	The independence among Industry and scientific research
1935	벨기에 브뤼셀	Transport
1937	프랑스 파리	Arts and technology in modern life
1939	미국 뉴욕	Building the World of Tomorrow
1949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The festival of Peace
1958	벨기에 브뤼셀	A World View: A new Humanism
1962	미국 시애틀	Man in the Space Age
1967	캐나다 몬트리올	Man and his World
1970	일본 오사카	Progress and Harmony for Mankind
1992	스페인 세비야	The Age of Discovery
2000	독일 하노버	Humankind – Nature - Technology
2005	일본 아이치	Nature's Wisdom
2010	중국 상하이	Better City, Better Life
2015	이탈리아 밀라노	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
2020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
2025	일본 오사카	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

자료: 국제박람회기구(BIE)

- 역대 월드엑스포 개최국과 개최 도시를 살펴보았을 때 상업적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과 중심지역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음
 -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국가 위주로 월드엑스포가 개최되었음
 - ▶ 특히 선진국 내에서도 런던과 파리, 뉴욕, 밀라노 등 세계적인 상업적 중심지로 꼽히는 도시에서 월드엑스포가 진행되었음
 - ▶ 월드컵과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와 달리 개최국과 개최도시의 상업적 역량이 월드엑스포 유치에 큰 쟁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월드엑스포와 인정엑스포는 개최기간과 전시면적, 개최주제 등에서 차이를 보임
 - ▶ 월드엑스포는 0과 5로 끝나는 연도에 5년 주기로 개최되며 인정엑스포는 월드엑스포가 열리는 사이에 1회 개최됨
 - ▶ 개최기간의 경우 월드엑스포는 6주에서 6개월간 진행되며 인정엑스포는 그보다 짧은 3주에서 3개월 동안 진행됨
 - ▶ 인정엑스포는 최대 7만 5000평으로 전시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만 월드엑스포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음
 - ▶ 특히 인정엑스포의 경우 개최국이 전시관을 건축하고 참가국에 무상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월드엑스포는 개최국이 전시관 부지만 제공하고 그 외 건설비용은 참가국이 부담하기 때문에 개최국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월드엑스포의 재정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음

<표 2> 월드엑스포와 인정엑스포의 차이

월드엑스포	구분	인정엑스포
5년 주기	개최시기	월드엑스포 사이에 1회 개최
6주~6개월	개최기간	3주~3개월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 참가국이 자비로 건설	전시관	개최국이 건축하고 참가국에 무상제공
무제한	전시면적	최대 7만 5,000평
광범위한 주제	개최주제	명확한 특정주제
총 12회	개최 횟수	총 31회



자료: 부산광역시

- 월드엑스포 유치는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개최 9년 전 시점부터 유치 신청이 가능함
 - ▶ 국제박람회기구는 유치 후보 국가들이 제출한 유치계획서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평가 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여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개최지 선정 투표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 ▶ 유치 후보 국가들은 국제박람회기구의 상·하반기 총회에서 엑스포 개최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한편 개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유치교섭 활동을 펼침
 - ▶ 개최지 선정은 개최 7년 전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됨. 유치 후보 국가가 2곳일 경우 더 많은 수의 표를 얻은 국가가 개최국으로 결정되며 3곳 이상일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2/3 이상의 표를 얻은 국가가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장 적은 수의 표를 얻은 후보국을 제외한 뒤 재투표를 실시함
 - ▶ 한 국가가 월드엑스포나 인정엑스포를 개최했을 경우 같은 성격의 엑스포를 15년 이내에 다시 개최할 수 없음
 - ▶ 현재 국제박람회 회원국은 170개국이며 회원국들은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고, 총회에서 동등하게 한 표씩 투표권을 가지며, 최대 3명의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 국제박람회기구는 창립 초기부터 핵심 가치를 ‘교육’, ‘혁신’, ‘협력’에 두고 있으며 모든 엑스포는 각자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주제를 제시해야 함
 - ▶ 초기의 엑스포가 산업 혁신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모았다면 현재는 인류가 직면하는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글로벌 담론의 플랫폼 기능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음
 - ▶ 엑스포 주제 선정시 개최국들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정치, 종교, 문화적 갈등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개최국과 개최 도시만의 신선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함

- 엑스포는 역사적 사건 기념 명분으로도 개최된 바 있음
 - ▶ 1876년 미국 필라델피아 엑스포와 1889년 프랑스 파리 엑스포는 각각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미국 독립과 프랑스혁명의 100주년을 기념하며 개최되었음



- ▶ 미국 시카고 엑스포 스페인 세비아 엑스포, 이탈리아 제노아 엑스포는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을 기념하며 개최되었음
- ▶ 한국의 경우는 1993년에 개최된 대전 엑스포가 한국의 엑스포 최초 참가 100주년을 기념하며 개최되었음

<표 3> 엑스포와 역사적 사건 기념

1876년	미국 필라델피아 엑스포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
1889년	프랑스 파리 엑스포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
1893년	미국 시카고 엑스포	콜럼버스 미대륙 발견 400주년 기념
1992년	스페인 세비아 엑스포 이탈리아 제노아 엑스포	콜럼버스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
1993년	한국 대전 엑스포	한국 엑스포 최초 참가 100주년 기념

자료: (사)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2. 한국의 엑스포 역사

- 한국과 엑스포의 첫 인연은 1893년 시카고 엑스포에서 시작되었으며 ‘대조선(Korea)’ 국호로 참가함
 - ▶ 19세기 말 당시 조선은 일본과 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던 시기였으며 나라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통로로 1882년 미국과 조미 수호조약을 체결함. 시카고 엑스포 참가는 보빙사 파견, 상호공사관 개설, 우정국 신설 등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움직임의 연장선이었음
 - ▶ 시카고 엑스포는 아메리카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며 개최되었으며 47개국이 참가하여 웅장한 규모의 ‘화이트시티’ 박람회장에서 진행됨
 - ▶ 코리아전시실은 참가국 중 가장 작은 규모였지만 기와를 쌓은 한옥 형태의 전시관에서 나전칠기, 방석, 갑옷, 관복, 부채, 짚신 등 생활용품으로 이루어진 전시품들이 관람객들의 흥미를 자아냄
- 1900년 파리 엑스포 참가 이후 대한민국 국호로 국가관을 건립하여 참가를 시작한 엑스포는 1962년 시애틀 엑스포이며 그 이후 우리나라는 모든

- 엑스포에 한국관으로 참가함
- ▶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서는 개최국인 중국 다음으로 큰 7,683m² 규모의 한국관을 개설해 역대 최대 관람객인 725만 명을 기록함
 - ▶ 전시 관람을 위해서는 3~4시간 가까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어 당시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한국관 입장이 한국 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함
- 한국은 엑스포 참가에 그치지 않고 지난 1993년 대전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 등 두 차례의 인정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성장함
- ▶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정식 가입은 1987년 5월 엑스포 개최에 처음으로 도전하며 이루어짐
 - ▶ 1993년 대전에서 개발도상국 최초로 인정엑스포를 개최하였음. ‘새로운 도약의 길’을 주제로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108개국 33개 국제기구가 참가하고 1,4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함
 - ▶ 2012년 여수 엑스포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104개국 10개 국제기구가 참가하고 관람객은 820만 명으로 추산됨
- 1993 대전세계박람회는 1인당 국민소득 7,000달러 진입으로 국가 발전의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면서 2000년대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려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개최되었음
- ▶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정한 엑스포 주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 (The Challenge of a New Road to Development)’이며 부제는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의 조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임
 - ▶ 대전세계박람회는 총 93일간 진행되었으며 전문 엑스포 사상 최대인 108개국과 33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했음
 - ▶ 1993 대전세계박람회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였을 때 생산유발액이 3조 643억 원, 이로 인한 소득유발액이 1조 2,500억 원이며 고용 창출 효과는 21만 2,000명으로 추정됨²⁾
 - ▶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전세계박람회는 국제 수지의 개선, 전자 정보통신, 첨단 미래 산업 및 관광 사업 등 엑스포 관련 사업의 발전, 경제 협력의

2) 김학민(2002), <KOTRA 40년 한국경제 40년>, KOTRA

- 다변화, 지역 경제 발전 등의 효과를 낳았음
- ▶ 특히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의욕을 증진시켰고 해외 경제 협력과 통상 기반 구축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됨
-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93일간 개최되며 104개국과 10개 국제기구 참가, 누적 관람객 820만3천956명의 성과를 얻었음
 - ▶ 수도권과 떨어진 남해안의 소도시 여수에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해양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와 학술행사 등으로 해양 아젠다의 중심에서 다양한 안건을 제시하였음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하면 여수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는 12조 3,000억 원의 생산유발, 5조 7,2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7만 8,800여 개의 고용창출로 예측되었음. 생산유발 효과는 1993년 대전엑스포의 생산유발액을 4배 웃돌고 1988년 서울올림픽의 2배,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맞먹는 수치임³⁾
 - ▶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는 특히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의 지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 정몽구 회장은 그룹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으며 전 세계 190여 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민간 외교의 성과를 극대화하였음
 - ▶ 김재철 회장은 여수박람회 민관 합동 중앙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세계 전체의 효과적인 지지활동을 이끌어내었음

3. 엑스포 개최의 국가적 의미

- 엑스포 개최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에 속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국의 위상을 의미함
 - ▶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했을 경우 1988년 서울올림픽, 2022년

3) 뉴시스, [엑스포, 이젠 사후활용]③'한국의 나폴리' 여수의 미래, 2012년 8월 11일 기사

- 한·일 월드컵에 이어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전 세계 7 번째 국가가 됨
- ▶ 현재까지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3대 행사를 모두 개최함
 - ▶ 등록엑스포의 경우 전 세계 12번째, 아시아에서 4번째로 개최하게 됨
 - ▶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권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위권 국가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등록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한 상황임
- 지역적 차원에서 글로벌 도시 부산을 세계에 각인시킬 기회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 2030년은 국제박람회기구가 창립된 지 한 세기가 넘어서 열리는 첫 월드엑스포임
 - ▶ 이에 더해 2030년은 우리나라 광복 85주년이자 한국전쟁 80주년이 되는 해이며 부산 APEC정상회의는 25주년을 맞게 됨
 - ▶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명분으로 진행되었던 이전 엑스포의 사례를 살펴해보았을 때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는 특히나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음
- 아시아 4대 마이스(MICE) 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공고하게 다질 수 있음
- ▶ 마이스란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마이스 산업이란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행사 산업을 뜻함
 - ▶ 세계적 물류허브 및 크루즈항만 개발, 신공항과 함께 부산에서 중국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新)실크로드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 부산은 중국, 러시아, 유럽 등과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망(TOR, TCR)의 시작과 끝 지점으로 환동해와 태평양권의 중심지임
 - ▶ 2017년 UIA(국제협회연합) 평가에서 아시아 4위(1위 싱가포르, 2위 서울, 3위 도쿄), 세계 7위의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부산이 선정된 바 있음

III

엑스포 유치의 경제적 효과

-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며 인류가 이룩한 업적 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전시하고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임
 - ▶ 월드엑스포는 개최 기간이 6개월로 인정엑스포보다 2배가량 길며 전시면적 제한이 없음. 참가국이 자비로 자국관을 설계하고 건설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환경연구원(KEI)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부가가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각각 2.1배, 3.6배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⁴⁾
 - ▶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참가 규모는 200여 개국, 5,050만 명으로 추산되며 총사업비는 4조 8,995억 원, 예상 파급효과는 43조 원의 생산규모, 18조 원의 부가가치, 50만 명의 고용창출로 예측됨

1. 우리나라의 상업적 경쟁력

- 세계박람회는 다른 국제 행사와 다르게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인 정부 대표들의 투표에 의해 개최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유치 홍보 시 각국의 상업적 이익과 직결되는 전략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 ▶ 상품판매 등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가 기본이 되는 행사이므로 회원국들의 투표는 해당 개최지에서 어느 정도의 상업활동이 가능한지가 중점이 될 수 있음
 - ▶ 올림픽, 월드컵과 달리 세계박람회 개최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며 그동안 선진국 개최 건수가 90% 이상인 것을 보았을 때 세계박람회 개최는 해당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입증할 수 있음
- 1990년대 말부터 한국의 컨벤션 산업이 각광받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른

4) 조유장(2021),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 본격화, 부산발전포럼 187호, (사)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각종 지원제도도 마련되었음

- ▶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기준으로 집계되는 세계 국제회의 개최 건수 순위에서 한국은 2016년과 2017년 두 해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함
 - ▶ 전문 컨벤션센터가 전국적으로 건립되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하는 도시임
 - ▶ 부산(벡스코)과 일산(킨텍스) 등은 컨벤션센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모이는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도시의 인지도와 함께 관련 인프라도 크게 증설되고 있음
 - ▶ 202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15개의 컨벤션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중에 있음
- 회의, 컨벤션, 전시/이벤트를 포함한 한국의 마이스(MICE) 산업은 국제협력과 교류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래 관광산업 중 하나로 집중 육성되고 있음
 -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마이스 사업체의 매출액은 2016년 5조 584억 원에서 2017년 5조 188억 원, 2018년 5조 4,351억 원으로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2018년 국내 MICE 수요 규모는 총 7조 4,014억 원이며 국가 전체 GDP에 0.19% 기여하고 있고 부가가치율은 약 35.0%임⁵⁾
 - 한국은 코엑스, 킨텍스, 벡스코 등 국내에 다양한 컨벤션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관련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음
 - ▶ 부산 벡스코(BEXCO)는 2001년 5월 개관한 후 해마다 행사 개최 기록을 갱신하며 매머드급 국제전시회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 일산 킨텍스는 아시아 4번째 전시면적으로 국제 전시와 컨벤션을 유치하고 있으며 강남 코엑스는 연간 200회 이상의 전시회와 2,500회 이상의 국제회의 및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음
 - ▶ 특히 2022년 9월 29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국제소싱페어에 약 2만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방문해 유통채널 입점과 해외수출 현장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내실있는 비즈니스 성과가 기대됨
 - ▶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2 국제아웃도어캠핑&레포츠페스티벌(고카프)’에

5) 문화체육관광부(2020), MICE산업 경제규모 추정 및 성장 지표 개발 연구

는 약 200개의 업체가 참가해 성황을 이룸

2. 역대 엑스포 개최국의 경제적 성과

- 엑스포를 개최했던 국가들은 모두 경제성장, 기술발전, 인프라 개선 등의 양적 발전과 생활 여건의 개선과 같은 중장기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음
 - ▶ 6개월간 진행되는 월드엑스포는 개최 기간동안 기업 행사, 상담회, 전시 이벤트, 축제 등을 통해 얻는 관광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최 국가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함
 - ▶ 실제로 중국은 2010년에 개최되었던 상하이 엑스포의 성과를 발판삼아 경제강국으로 다시금 도약할 수 있었고 일본 또한 2025년 오사카 엑스포를 통해 일본 경제의 재부흥을 꾀하고 있음
 - ▶ 많은 국가들이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이유는 엑스포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임(<표 4> 참고)

<표 4> 역대 월드 엑스포의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2010 상하이 엑스포	2015 밀라노 엑스포	2020 두바이 엑스포*	2030 부산 엑스포*
참가국 (관람인원)	192개국 (7,300만 명)	145개국 (2,200만 명)	6조 9천억 원 (2,500만 명)	200여 개국 (5,050만 명)
투자액	5조 2천억 원	4조 3천억 원	6조 9천억 원	4조 9천억 원
경제효과	110조 원 (관광수입 52.7조 원)	53조 원	생산유발 38조 원	생산유발 43조 원 부가가치유발 18조 원
고용창출	63만 명	24만 명	28만 명	50만 명

자료: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2020 두바이 엑스포와 2030 부산 엑스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추정치임

- 상하이 엑스포(2010)는 192개 국가와 50개의 국제기구, 다수의 기업이 참여해 6개월간 7,4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엑스포였음

-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상하이 엑스포 개최의 경제적 효과는 도소매 매출액 20% 증가, 관광수입 3,100억 위안(52조 7천억 원) 창출, 63만 명 고용창출 등 상하이 지역경제에 총생산 5% 증가로 상당한 규모였음⁶⁾
 - ▶ 중국이 상하이 엑스포를 통해 얻은 경제적 효과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포인트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됨.⁷⁾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경제효과의 3.5배 수준으로 높은 성과를 얻음
 - ▶ 상하이 엑스포는 낙후된 지역인 푸동의 산업 구조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전환한 계기가 되었음. ‘황포강 연안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된 엑스포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시설과 자연녹지, 교통 인프라 등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음
- 밀라노 엑스포(2015)는 6개월간 총 132개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가했으며 2,15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음
 - ▶ 서비스, 관광, 물류 등의 산업분야에서 94억 유로(약 12조 원)의 수입을 달성해 총 60억 유로의 직접생산 효과를 냈으며 엑스포 개최 전 3만 개, 기간 중 8만 개로 총 11만 개의 고용창출을 이끌어냈음
 - ▶ 이탈리아는 엑스포 개최를 위해 밀라노 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다했으며 엑스포 개최 이후 국가 최대의 관광지로 거듭났음.
 - ▶ 밀라노 도심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엑스포 부지는 과거 노후 공단과 농지 위주 지역에서 각종 기업과 연구소가 밀집한 산업집적 단지로 발전하였음
 - 두바이 엑스포(2020)는 코로나19로 개막이 1년 연기됐으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19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2,4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성황을 이룸
 -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엑스포 유치에 도전한 만큼 두바이는 개최지인 자발알리 지역의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두바이 남부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부흥을 꾀하였음
 - ▶ 자발알리 지역에 대규모 알막툼 국제공항이 새롭게 건설되었으며 130만 명이 넘는 사막에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거단지와 박람

6) KOTRA(2010), 상하이 엑스포 참가와 경제적 가치

7) 머니투데이, 상하이 엑스포 폐막... 中 ‘변영의 시대’ 서막, 2010년 10월 31일자 기사

회장을 연결지었음

- ▶ 두바이는 ‘District 2020’ 지역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월드 엑스포 개최 지역 전체를 박람회 전시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음. 장기적으로 800세대의 주거지역을 조성하고 공원, 박물관, 전시컨벤션센터 등의 문화시설과 함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입주시켜 주거-문화-산업을 연결 짓는 중심지로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함

3. 엑스포 개최 후 장기적 전망

- 월드 엑스포 개최는 단기적으로 전시 기간 동안 방문객이나 관람객들의 유입에 따른 소비 촉진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이익이 있으며 장기적 이익으로는 개최 도시와 개최 국가의 전반적 경제 향상이 있음
 - ▶ 엑스포 개최를 위해 지역에 투입되는 자본과 증축되는 인프라는 향후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 낙후되거나 소외된 도심 외곽 지역을 활성화시켜 도심의 외연을 확장하고 개최 도시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여 혁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됨
 - ▶ 파리 중심가-에펠탑-센강을 연결짓는 박람회장을 통해 도시를 새롭게 재구성한 프랑스 파리의 사례, 박람회 공간과 구도심 외곽을 연결지어 새로운 도심을 창출한 오스트리아 빈과 스페인 사라고사의 사례, 국제 규모의 빙상장, 축구장, 야구장을 두루 갖춘 복합스포츠 단지인 일본 아이치의 사례 등을 들 수 있음⁸⁾
-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역시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와 도시의 경제 발전과 혁신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 엑스포 주제 관련 산업기술의 소개 및 확산, 교통을 비롯한 지역발전 기반을 다지는 SOC분야 투자 활성화, 경제활력 증진 등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음⁹⁾

8) 장인우(2021), 세계박람회 개최 동향의 시사점과 향후 전망, 산은조사월보,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9) 김해창(2021), 개최 최적지 부산의 매력과 엑스포 비전, 부산발전포럼 187호, (사)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

- ▶ 이는 단지 부산이라는 도시의 부흥을 넘는 일이며 국가 인지도를 높이고 국가의 경제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월드 엑스포 개최는 한국의 숙원 사업인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음
 - ▶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하는 남부경제권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계획임
 - ▶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지역총생산 변화와 1인당 지역총생산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의 두 지표 모두 전국평균 이하를 보였음¹⁰⁾
 - ▶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역을 잇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엑스포 개최를 통해 혁신기업들이 지역 내에 유입됐을 시에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청년 인구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 이를 통해 약 800만 명의 인구와 전국의 27%를 차지하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을 보유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총광역 협력체계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세계 30위권 글로벌도시 도약, 1인당 소득 5만 불, 고용률 70% 달성, 세계 3대글로벌 해양도시로의 도약 등의 내용을 담은 ‘2030 부산비전’을 실현할 수 있음
 - ▶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 부산의 지경학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철도·항만·공항의 물류3합 완성으로 세계적 물류 허브이자 국제물류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음
 - ▶ 과거 대전 엑스포(1993)가 경부고속도로 차선 확장, 대전-신탄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갑천 정비와 엑스포 아파트 건설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대전을 중부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 여수 엑스포(2012)가 전라선 KTX 신설, 전라도 각지에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관광 수요 증가 등으로 여수를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엑스포 유치는 부산의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 ▶ 부산세계박람회 부지인 북항 재개발로 항만 시설로 사용되던 낙후지역을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전환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의의가 있음
 - ▶ 뿐만 아니라 부산역-환승센터-수변공원-국제여객터미널-엑스포 부지를

유치위원회

10) 김용웅(2018),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향, 경제연구



연결함으로써 원도심 재생을 촉진시키고 부산 내 교통 편리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IV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시사점과 과제

1.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 및 노력: 실무차원

- 2021년 7월 김영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제, 외교, 언론 등으로 구성된 (재)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11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유치지원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
 - ▶ 이어 12월에 관련법안 통과와 함께 국회유치특별위원회가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2월 첫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병수 국회의원을, 간사에 박재호 국회의원과 안병길 국회의원을 선임함
 - ▶ 이로써 2020년 6월에 출범한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와 함께 실질적인 범국가 유치체제가 구축됨

-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로 방탄소년단, 이정재 등 전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한류스타를 임명하며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음
 - ▶ 엑스포 유치 기원 방탄소년단 글로벌 부산 콘서트 개최, BIE 회원국 특성 살린 유치 교섭 활동, BIE 현지 실사 진행 때 방탄소년단 멤버의 실시 대상 장소 직접 안내, BIE 총회 경쟁 PT에서 홍보대사 역할 수행, 개최지 선정 투표일 현장에 참석해 부산 개최를 지지하는 요청 메시지 전달, 디지털 홍보활동을 위한 영상과 사진 촬영, 공식 SNS를 통한 홍보 영상 확산 등의 홍보활동을 진행
 - ▶ 엑스포 유치 기원이라는 명목으로 2022년 10월 15일(토) 오후 6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BTS 콘서트 “Yet to Come in Busan”이 개최되었음

-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22년 6월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방문해 각국 대사들과 직접 만나며 기업 차원의 노력을 진행함
 - ▶ 일본에서는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과 회동하며 일본 재계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함
 - ▶ 멕시코 외무장관과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당부와 함께 한국과 멕시코 간 경제협력을 요청함



2.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 및 노력: 민간차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를 만나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
 - ▶ 당시 이 회장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함께 선도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함
 - ▶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예방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그 후 삼성전자 케레타로 가전 공장 및 삼성엔지니어링의 도스보카드 정유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함

- 이재승 삼성전자 사장은 '2022 한국·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한 엔리케 레이나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을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함
 - ▶ 라과엘 고메스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광물부 차관, 아르놀도 안드레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 파브리시오 메나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혁신부수석 등 중남미 외교사절단을 경기도 수원시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에 초청해 한포를 행사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함

-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박람회 유치를 위해 TF팀을 꾸려 약 140여개에 달하는 LG전자의 해외법인 네트워크망을 동원해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칠 예정임
 - ▶ 뉴욕 타임스퀘어와 런던 피카딜리광장 등 세계 주요 거점에 위치한 전광판과 세계 각국 브랜드샵에 전시된 TV 모니터에 홍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상영할 계획임

- 현대차 그룹은 2021년 8월 마찬가지로 유치 지원을 위한 그룹 차원의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6월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진행되었던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국 2차 경쟁 설명회에 참여하였음
 - ▶ 지난 7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중남미 주요 10여개국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와 각국 대사를 현대차 브랜드 체험관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으로 초청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강력히 요청하였음

- ▶ 이날 현장에서 공영운 현대차 그룹 사장은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산이야말로 2030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며 부산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 ▶ 현대차 그룹은 이밖에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SNS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중에 있음
- 롯데 그룹은 ‘롯데 그룹 유치 지원 TFT’를 구성하여 전사 차원의 조직 형태로 유치 경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 지난 7월에는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각 계열사 대표 회의인 VMC를 부산에서 개최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현안 이슈에 대응하고자 하였음
 - ▶ 신동빈 회장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2 롯데오픈에서 엑스포 홍보전에 나서고 세계소비재포럼(CGF) 글로벌 서밋에 참석해 부산 엑스포 홍보 부스를 따로 운영하는 등 엑스포 유치에 큰 관심을 두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 포스코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TF팀을 확대 발족시키고 정탁 포스코 사장이 리더를 맡아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함
 - ▶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칠레 등 7개국의 해외법인을 활용하여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계획이며 ‘기업시민 포스코 콘서트’와 ‘ESG 글로벌 서밋’ 등 각종 국내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3. 경쟁국 대비 유치 경쟁력

-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은 대한민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의 3파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꼽힘
 - ▶ 막대한 달러 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일머니를 앞세워 개발도상국 위주로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음. 특히 혈통과 종교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아랍권에서 넓은 지지를 확보하였고 57개국이 가입

- 한 이슬람협력기구(OIC)가 지지를 선언했음
-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에너지난은 자원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무함마드 왕세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지지 약속을 끌어냈음
- 현 상황에서 초반 판세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기운 것으로 판단되나 부산시와 정부 대표단은 역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높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 ▶ 우리나라의 세계박람회 유치전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년 정도 늦게 시작되었음
 - ▶ 코트라(KOTRA)에 의하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국 결정을 1년여 앞둔 현재 스코어는 ‘한국 16 : 경쟁국 48’로 나타남. 대륙별 한국이 지지를 확보한 세부 스코어는 유럽 1곳, 아프리카 4곳, 중남미 6곳, 중동 0곳, 아시아 5곳 등임¹¹⁾
 - ▶ 부산시는 국제박람회기구 170개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 지지국은 50여곳, 한국 지지국은 30여곳, 지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국가는 90개국으로 분석하고 있음
 - ▶ 한국 정부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략 국가를 국제박람회기구 추가 가입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총 199곳으로 지정하였음
 - ▶ 대통령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피쉬(fish)를 일시적으로 줄 수 있는 국가”라고 표현하며 “한국은 하우 투 피쉬(how to fish)를 알려줄 수 있는 전략과 이야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쟁 상황에 대해 현재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유치전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음¹²⁾
 - ▶ 최근 인권문제와 원유감산 조치를 놓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동맹 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미국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의 세계박람회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한국 정부는 ‘부산 프로젝트’를 가동해 개도국 국가들을 상대로 전자정부, 스마트 시티, ICT 교육 등 저개발 국가들의 발전에 맞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경쟁 판세를 바꾸고자 계획 중에 있음

11) 부산일보, 엑스포 초반 표심 ‘16 대 48’... “밀리지만 역전 가능”, 2022년 10월 11일자 기사

12)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부산엑스포 유치, 사우디에 지지 않고 있다", 2022년 10월 4일자 기사

- ▶ 한덕수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이 중앙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를 전략적으로 공략하여 유치전을 펼치고 있음
- ▶ 삼성과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소형 원자료를 활용한 청정 에너지 기술도 위와 같은 국가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부산에 있는 디지털캠퍼스를 각국에 만들 주기로 결정해 표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이 이룩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스토리와 노하우를 통해 접근한다면 지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 올림픽과 월드컵과 달리 엑스포는 각국의 표를 얻기 위해 국가적 이익을 제시하는 접근법이 필요함.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의 미래 협력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유치전의 핵심이 될 수 있음

4.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향후 과제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정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음
 -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5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약속한 바 있음
 - ▶ 부산광역시는 2023년 정부 예산안 중 핵심사업으로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에 1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힘
 - ▶ 지난 9월 17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조속한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음
 - ▶ 2030년 이전에 주요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설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됨
 - ▶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은 단순히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도구적 개념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신항과 더불어 부산을 국제물류 허브 도시로 올려놓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인근 울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이 함께 건설되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임

- 최근 20년 이내에 개최되었던 세계박람회 개최국의 유치 성공 사례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 추진력 있는 유치위원회와 전국민적 관심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 2020 두바이세계박람회의 경우 아랍에미리트(UAE) 총리인 세이크 모하메드가 유치의 전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전면 유치 활동을 펼친 것이 대표적인 성공 요인으로 꼽힘
 - ▶ 2015 밀라노 세계박람회는 민관이 힘을 합쳐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총력을 쏟았으며 엑스포 종료 이후 부지 및 건물 활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높은 평가가 유치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사료됨
 - ▶ 2010년에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상하이 또한 중국 정부가 강한 열망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개최지 선정 1년 전에 박람회장과 교통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며 탄탄한 사전 작업에 공을 들였음
 - ▶ 지역사회와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등에 업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는 것이 유치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음

-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이 상업의 중심지로 거듭남과 동시에 상업세계에 대한 전국민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사의 목적을 맞춰야 함
 - ▶ 박람회 소비자들의 욕구에 충실한 방향으로 행사가 구성되고 전 세계 기업들의 상업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엑스포의 흥행을 이끄는 것이 중요함
 - ▶ 이번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 친기업 문화와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일 그리고 개방과 무역이 국가의 경제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길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를 확산하는 계기로 세계박람회가 활용되어야 함

-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없이는 세계박람회 유치가 불가능한 만큼 엑스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 개최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하나 꼽으면 국민적 지지

- 를 결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 세계박람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전국민적 엑스포 유치 열기를 높이기 위한 다방면적 노력이 필요함

V

결론

- 세계박람회 개최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히는 대규모 국제 행사임
 - ▶ 2030년 대한민국이 부산에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했을 경우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어 세계 3대 축제를 모두 개최하는 전 세계 7번째, 아시아 2번째 국가가 됨
 - ▶ 지역적 차원에서 아시아 4대 마이스 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공고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세계적 물류허브 및 크루즈항만 개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과 함께 글로벌 허브도시로써 중국과 러시아, 유럽 등과 연결되는 환동해 및 태평양권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음

-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예상 파급효과는 43조 원의 생산규모, 18조 원의 부가가치, 50만 명의 고용창출로 예측됨
 - ▶ 역대 세계박람회를 개최했던 국가들은 모두 경제성장, 기술발전, 인프라 개선 등의 양적 발전과 더불어 생활 여건의 개선과 같은 중장기의 경제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음
 - ▶ 부산세계박람회 또한 항만 시설로 사용되던 낙후지역을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전환하고 부산역-환승센터-수변공원-국제여객터미널-엑스포 부지를 연결함으로써 원도심 재생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더 넓게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잇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발전시킬 수 있음

- 세계박람회는 다른 국제 행사와 다르게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인 정부 대표들의 투표에 의해 개최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유치 홍보 시 각국의 상업적 이익과 직결되는 전략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 ▶ 상품판매 등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가 기본이 되는 행사이므로 회원국들의 투표는 해당 개최지에서 어느 정도의 상업활동이 가능한지가 중점이 될 수 있음
 - ▶ 올림픽, 월드컵과 달리 세계박람회 개최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며 세계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경제적 위상을 입증한다는 뜻이 될 수 있음



- 정부와 민간, 국회 등은 범국가적 ‘Korea One Team’으로서 전방위적 유치교섭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 ▶ 현재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음
 - ▶ 14개 정부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삼성전자·SK 등 5대 그룹 및 CJ, 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KOTRA, KOICA 등 민관이 협력하여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함

- 2020 두바이세계박람회, 2015 밀라노세계박람회 등 지난 세계박람회 개최국의 유치 성공 사례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유치 전략의 핵심임을 알 수 있음
 - ▶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우리나라의 차별화 포인트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가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꾸준히 신뢰관계를 쌓아나가겠다고 말했으며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음
 - ▶ 그 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주완 LG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그룹 사장 등 민간 차원에서 기업 최고위층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 경쟁국 대비 탁월한 기업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유치전에 나서고 있음
 - ▶ 지역사회와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등에 업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유치 전략의 핵심이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가능하게 할 원동력임

- 지역사회와 시민의 열망과 지지가 세계박람회 개최를 가능하게 할 핵심 원동력임
 - ▶ 세계박람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유치 열기를 높이는 일이 개최지 선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위한 다방면적인 노력이 필요함



참고 문헌

-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2030busanexpo.kr/index.expo>
- 2020 두바이엑스포 홈페이지,
<https://www.visitdubai.com/ko/explore-dubai/expo>
- 국제박람회기구(BIE) 홈페이지, <https://www.bie-paris.org/>
- 김용웅,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향, 경제연구, 2018
- 김학민, <KOTRA 40년 한국경제 40년>, KOTRA, 2002
- 김해창, 개최 최적지 부산의 매력과 엑스포 비전, 부산발전포럼 187호,
(사)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2021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2차 회의
- 문화체육관광부, MICE산업 경제규모 추정 및 성장 지표 개발 연구,
2020
- 부산광역시,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개요 및 개최효과,
<https://www.busan.go.kr/2030worldexpo01>
- 장인우, 세계박람회 개최 동향의 시사점과 향후 전망, 산은조사월보,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2021
- 조유장,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 본격화, 부산발전포럼 187호,
(사)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2021
- KOTRA, 상하이 엑스포 참가와 경제적 가치, 2010